

예측으로 본 1995년까지의 패션 경향 —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중심으로 — FORECAST OF FASHION TO 1995 — Concerning the Behavioral Science Models of Fashion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오 현 남 · 김 문 숙

目 次	
I. 序 論	4. 모던 클래식(Modern Classic)
II. 1980년대의 패션 경향	5. 모던 레트로와 모던 페미닌 (Modern Retro & Modern Feminine)
1. 역사적 반복성과 연속성으로 본 1980년 대의 패션 경향	6. 모던 에스닉(Modern Ethnic)
2. 예술사조를 통한 1980년대의 패션 경향	7. 파워 드레스(Power Dress)
III.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통한 패션 예측	8. 믹스 모드와 뉴-코오디네이트 룩 (Mix Mode & New Coordinate Look)
1.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	9. 모던 팝·오퍼·그래픽 패턴 (Modern Pop·Op·Graphic Pattern)
2.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과 패션 예측	
IV. 1995년까지의 패션 예측	V. 스타일화 제시
1. 바디 컨셔스 룩(Body Concious Look)	VI. 결론
2.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와 슈퍼 쇼츠 (Micro Mini Skirt & Super Shorts)	參 考 文 獻
3. 1960년대의 영향('60s Influence)	ABSTRACT

I. 序 論

유행은 창조, 수용, 쇠퇴, 교체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유행의 반복적 사이클(Cycle)은 우리들의 의생활 역사에 점철(點綴)되어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유행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유행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가까운 장래의 유행을 예측 하기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유행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미래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첫째, 유행의 역사적 반복성과 연속성 관점에서 지난 10년간(1980~1989)의 패션 스타일과 패션에 반영된 예술사조를 살펴보고,

둘째, George B. Sproles가 그의 '패션 행동 과학

이론(Behavioral Science Models of Fashion)'에서 제시한 유행 현상에 관한 8가지 모형(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역사적, 의사소통, 마케팅, 예술사조 모형) 중 역사적 모형과 예술사조 모형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셋째, 이런 이론들과 지난 10년간 패션 스타일 그리고 패션에 반영된 예술사조와의 상호 연관성을 <유행 주기 곡선>으로 나타내어, 현재와 미래 패션의 흐름을 파악하려 하였다.

본 논문은 미래 패션 예측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서 의류 패션 산업의 유행 흐름을 예측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패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패션 예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패션 전문 서적, 미술 서적 등의 문헌 조사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그 외 1980년대의 정기 간행물, 특히 패션 전문 잡지의 대명사로 알려진 Vogue 지를 통하여 실증적 자료를 찾았다.

또한 본 연구는 예측 되어진 미래 패션 경향을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1995년까지의 미래 패션을 예측하는데 있어 패션 흐름의 역사적 고찰은 1980년대 패션 스타일 경향에서만 분석 하였고, 패션 현상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역사적 모형과 예술사조 모형에만 국한해서 미래 패션을 유추 해석 하였음을 제한점으로 두었다

II. 1980년대의 패션 경향

1. 역사적 반복성과 연속성으로 본 1980년대의 패션 경향

(1) 1980년 : 1978년 뉴-웨이브(New Wave) 패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핑크 패션(Punk Fashion)과 1979년에 절정을 이룬 테일러드 룩(Tailored Look)이 1980년에 계속하여 이어졌다. 1977년부터 시작된 구조적인 테일러드 룩은 어깨에 패드를 넣어 어깨를 세운 파고다 숄더(Pagoda Shoulder)와 허리를 조이며 둥근 곡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히프선을 표현하는 등 1940년대와 50년대의 이미지를 담은 복고풍이다. 이 룩은 1980년대 초반에 매니쉬 룩(Mannish Look)으로 전개 되면서, 여성을 보다 대담하고 남성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파리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에 의한 하이 패션 주문복이 다시금 좋은 반응을 보이며, 1980년대 패션의 큰 흐름인 유럽 패션의 전통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2) 1981년 : 전체적으로 빅 실루엣(Big Silhouette)에 의한 꾸뛰르적 셰이프(Shape)가 중요시된 구조주의 패션이 주목을 끌었다.

(3) 1982년 : 1981년부터 급격하게 건축이나 디자인, 미술 분야에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이 패션분야에서도 나타나 뉴-웨이브 패션의 두번째 시대를 맞았다. 과거 시대의 모드를 현대에 도입시킨 것으로, 아르 데코(Art Deco), 아르 누보(Art Nouveau), 1950년대 모드 등의 특징을 흡수하면서 현대 의복의 새로운 모드를 창조하

려는 움직임이었다. 유럽 패션의 전통적인 스타일에서도 바로크나 세기말의 화려하고 과장된 여성적인 분위기를 현대 감각에 맞게 변형 시킨 과장형이 나타났다. 스커트의 단선은 무릎선에 머무르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4) 1983년 :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시적인 현상이 이어 새로운 건축 양식인 네오 모더니즘(Neo Modernism)이 패션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네오 모더니즘은 기능주의와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극대화 시킨 모더니즘의 복귀를 말한다. 83년 실루엣은 82년도에 이어 둥글게 신체를 감싸는 여유 있는 스타일이었다. 샤넬의 책임 디자이너로 자리를 옮긴 Karl Lagerfeld가 스커트의 단을 올린 이후로 계속하여 스커트의 단은 올라갔다. 83년에 특히 할만한 점은, 파리 추동 콜렉션에서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데 있다. 이들은 '백 레이디 룩(Bag Lady Look)'으로, 혁신적이며, 탈관습적으로 양성적이며 빅 룩의 거의 야성적인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²⁸⁾ 또한 이들은 검은 색 의복을 중심으로 휘감기, 두루기, 매기, 걸치기 등 다양한 겹치기(Layering) 방식의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으로 뉴 웨이브 패션을 가속화 시켰다.

(5) 1984년 : 초반에는 83년 실루엣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이 계속 이어져 85년에는 극도에 달하였다. 1984년 후반에는 1960년대 말경의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인체 의식) 패션이 다시금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인 실루엣은 보다 인체를 가늘게, 신체의 선을 뚜렷이 나타낸 피티드(Fitted) 실루엣으로부터 렉탱굴러(Rectangular) 라인에 이르기까지 튜브(Tube) 라인이 주체를 이루고 있다.

(6) 1985년 : Vogue지는 'New Sence of Shape'에서, "지금 파리에서는 몸에 거의 스카ulpt드(Sculpted- 조각되어진; 밀착되어진) 된 것과 같은 옷에 대한 독특한 경향이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새로운 바디 컨셔스를 강조하며, 각 디자이너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85년의 전반적인 실루엣은 슬림(Slim), 쉬스(Sheath), 스트레이트(Straight) 형이 대표적으로 가늘고 긴 라인이 계속 이어졌다. 후반에 가면서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한 셰이프트 라인(Shaped Line)이 등장 하였다. 스커트의

다른 바디 컨셔스에 의한 다리의 강조로 그 길이가 무릎 위로 진행하였다. 뉴 웨이브 패션은 네오 모더니즘에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으로 이어졌다.

(7) 1986년: 바디 컨셔스 룩의 대두로 인해 피티드 룩이 성행하였다. 이것은 조형미가 패션의 아름다움으로 자리를 회복하는 계기였다. 넓은 어깨와 깊이 파여진 가슴, 각종 슬릿에 의한 노출, 다리의 강조로 디자인 되어졌다. 더욱이 팝 가수 Madonna의 란제리 룩(Lingerie Look)의 등장으로 여성의 육체미를 극단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바디 컨셔스 패션은 1989년-1990년까지 이어져 현대 패션의 특징적인 흐름이 되었다.

(8) 1987년: 강렬한 바디 마크(Body Mark)에서 소프트 바디(Soft Body)를 의식한 시대로 옮겨갔다. 이러한 시도는 밀라노 출신 디자이너 Romio Gigli에 의해 행해졌다. 1987년 패션 흐름이 다양한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1985년 등장한 세이프트라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것은 1930년대와 1950년대의 고전풍의 부활로 현재에는 전체적으로 밀착시킨 실루엣으로 변하였다. 스커트 단의 상향 진행으로 인해, 87년 이후로는 1960년대 말 절정을 이룬 미니 스커트(Mini Skirt)가 재출현하였다. 80년대 미니 스커트는 소녀(Girl)의 몸체가 아닌 여성(Women)의 몸체를 표현한 것이다.⁴⁾

(9) 1988-1989년: 이 시기에 바디 컨셔스 스타일은 내면에 에콜로지(Ecology) 풍을 불어넣어 여성의 인체를 자연스런 곡선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롭게 등장한 미니 스타일로 인하여 각 디자인 요소들 간의 상관적인 길이 비율에 있어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 1989년에는 롱 자켓(Long Jacket)이 나타났다. 또한 1989년 패션계는 다가올 패션에 있어 1960년대 패션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1989년 9월호 Vogue 지에서는 미니 스타일에 대한 "The Short Form"을 다루면서, 새롭게 90년대에 등장할 60년대 풍은 쇼트 스커트, 화려한 색상과 어우러진 경쾌한 드레스 등이라고 예견하고 있다.⁵⁾

2. 예술 사조를 통한 1980년대의 패션 경향

(1) 팝 아트를 통한 패션 경향

1980년대 초 뉴 웨이브 패션인 핑크 패션의 기조는 1960년대에 발생한 팝 아트에서 찾아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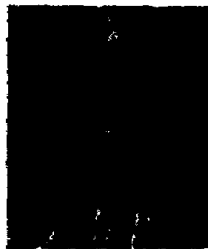


다. 팝 아트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따온 사진, 광고, 만화, TV 화면, 영화, 포스터, 간판, 상품의 상자, 상표, 교통 표시 그외 도시를 채색하는 여러가지 사인들로서 이들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현대 생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또한 이미 알려진 기존 이미지들인 것이다.⁶⁾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크 스크린(Silk Screen)이나 스텐실(Stencil)과 같은 복제 방법이라든지 사진적 이미지를 가져오는 간판 그림 수법 또는 콜라주(Collage), 그라피토(Graffito), 앗쌔블라주(Assemblage), 몽타주(Montage)와 같은 기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단편화 되거나 반복화 되어 그 의미가 강조되어졌다. 또한 새로운 소재로서 반투명직(See-Through Fabric), 비닐이나 가죽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의 소재도 특이한 방식으로 응용 되었다.⁷⁾ 이러한 팝 아트에 영향을 받은 미니 룩, 히피 룩(Hippies Look), 블루 진(Blue Jean) 등의 팝 패션이 반항적인 이미지와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코디네이트 시킨 핑크 룩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팝 아트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그 맥을 끊지 않고 80년대로 이어져 발전된 팝 패션 세계를 이끌었다.

〈도표 1〉은 1980년대 복식에서 다루어진 팝 패션의 특징들과 팝 아트의 실제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 옵 아트를 통한 패션 경향

1980년대 복식에 새롭게 재조명 되어 나타난 또 하나의 예술 사조는 60년대 옵 아트이다.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옵 아트는 형태면에서 단순하고 색채면에서 대담하면서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효과를 노려 의상에 영향을 주었다.⁸⁾ 옵 아트는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약칭이며, '시각 예술'이란 뜻으로 1963년경 뉴욕을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눈의 착각 현상을 이용하여 리듬감 있는 입체적 조형미를 느끼게 하는 예술로서 옵 아트는 1966년 패션에 반영되기 시작 하여, 옵 아트적 프린트 디자인이 새로운 모드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패션 디자이너로 하여금 새로운 기하학적인 접근을 이끌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옵 아트는 복식 디자인에 있어 단순히 옵 패턴만을 이용한 것이 아닌, 입체적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의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한 천에 새겨진 옵 패턴

〈도표 1〉 1980년대 패션 흐름에 나타난 팝 아트

작가	작 품	디자이너	팝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팝·패션의 특징
Andy Warhol (1962)	 〈One-Dollar Bill〉 (in: Andy Warhol, Kynaston Mcshine, p.163)	Chisato Tsumori (1987)	 (in: Collezioni, 87 / 88, A / W, p.136)	1980년대 팝·패션의 특징 팝 아트의 대중적 이미지를 수용하여, 부정적 입장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 관점에서 상품의 상표, 지폐를 복식의 테마로 삼아 패션 디자인에 신선한 감각을 창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⁹⁾
Claes Oldenburg (1962)	 〈햄버그와 얼음과자와 가격표〉 (in: Lucy R. Lippard, Pop Art, p.112)	Sekin & Killy Davoust Group (1989)	 (in: Collezioni, 90, S / S, p.147)	새롭고 혁신적인 소재의 사용과 전위적인 입체적 표현으로 팝 아트적 요소를 가지면서 80년대 복식에 계속하여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복식 소재의 범위는 확대 되었고, 다양화 되었다.
Roy Lichtenstein (1964)	 〈As I opened fire...〉 (in: Lucy R. Lippard, Pop Art, p.82)	 (1987)	 (in: Maccall's Patterns, '87, Summer, p.38)	1960년대 팝 아트의 오브제, 즉 인기 영화 배우나 팝송 가수의 얼굴, 미키 마우스와 같이 인기 만화 그림 또는 문자나 낙서 기법 등이 T-셔츠나 의상의 무늬, 장식으로 도입된 이래, 1980년대 패션의 한 테마로 등장 하였다.
Jin Dine (1965)	 〈부속품-모든 것〉 (in: 미술 세계, p.198)	Jean-Paul Gaultier (1988)	 (in: Gap, 89, S / S, Paris-1)	60년대 팝 패션 특징 중의 하나인 에로티시즘(Eroticism)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바디 컨셔스와 함께 새로운 인체 미학의 에로티시즘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80년대 란제리 룩은 팝 패션의 에로티시즘 표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의 효과만을 기대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의복의 각 부분에 각기 다른 옴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패턴과 단순한 스타일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옴 아트의 흑·백 대비만을 이용한 작품들이 여러 기성 디자이너들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도표 2>는 옴 아트를 통한 1980년대 패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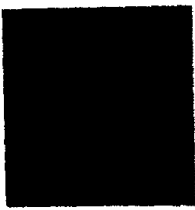



(3) 그래픽 아트를 통한 패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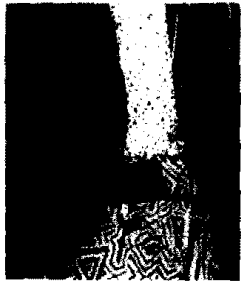



그래픽 아트는 책, 잡지, 광고, 포장, 간판, 필름 및 텔레비전 타이틀, 포스트, 팜플렛 등 인쇄예술이다. 이 예술은 각기 그 시대마다 독특한 기법과

특징을 가지면서 예술과 산업을 연결 시키는 교각으로 활용 되어졌다. 70년대 말부터는 컴퓨터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발달된 그래픽 아트를 낳았다. 이른바 CAD·CAM이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용하여 기존 복식에 사용된 패턴과 그외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만의 패턴을 화면에 시각화 시킴으로써, 실용적이고 진취적인 패브릭 패턴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현실로 옮김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미래 소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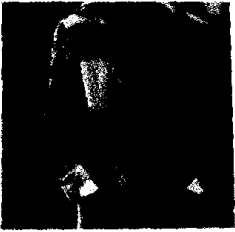
<도표 3>은 그래픽 아트에 의한 1980년대 패션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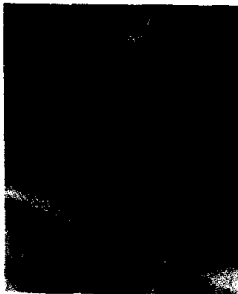
<도표 2> 1980년대 패션 흐름에 나타난 옴 아트

작가	작 품	디자이너	옴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옴·패션의 특징
Victor Vasarely (1964)	 〈무제〉 (in: 한국 미술 연감사, p.1293)	Kenzo Abe (1989)	 (in: Gap, '89, S/S, Tokyo-7)	다양한 삼각형을 이용한 리듬의 영향으로 명암의 효과가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폭이 넓은 튜닉 스커트에 옮긴 것이다. 인체와 치마 각각 움직임에 따라 다른 시각 효과를 높혀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다.
Bridget Riley (1964)	 〈흐름〉 (in: 20세기 미술의 모험 p.622)	Junko (1989)	 (in: Gap, '89, S/S, Paris-5)	흑·백의 선과 씨실로 이루어진 선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흐름으로써 눈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디자이너	옵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옵·패션의 특징	디자이너	옵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옵·패션의 특징
Tokao Ikeda (1987)	 (in:Collezioni, '87, p.319)	여러가지 기하학 모형을 흑, 백으로 처리하여 의상에 조화시킴으로써 또 다른 옵 패턴 효과를 주었다.	Norma Kamali (1989)	 (in:Gap, '89, S/S, New York-12)	스트라이프의 연결선을 이용하여 옵 아트 효과를 노렸다.
Akiko Isomura (1989)	 (in:Gap, '89, S/S Tokyo-15)	옵 아트 이후 스트라이프, 물방울 무늬 등을 길 모습에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John Galiano (1989)	 (in:Collection, '89 -'90, London-1)	호랑이, 얼룩말 등을 주제로한 줄무늬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옵 패턴이다.

<도표 3> 1980년대 패션 흐름에 나타난 그래픽 아트

작가	작품	디자이너	그래픽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그래픽·패션의 특징
Auguste Herbin (1951)	 (in: 20세기 미술의 모험, p.5740)	Gianni Versace (1987)	 (in:Collection, '88-'89, S/S, Milan-2)	80년대 들어서 그래픽 아트가 반영된 의상은 입체적인 인체 표면을 면분할하여 여러 가지 색상 활용-대조적인 색상 또는 파스텔 색조를 함으로써 스타일면에서는 간단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복잡한 현대 디자인의 특징을 담고 있다.
Ad Reinhardt (1952)	 (in:20세기 미술의 모험, p.504)	Zuccoli (1987)	 (in:Collection, '88-'89, S/S, Milan-10)	

작가	작품	디자이너	그래픽 아트가 응용된 의상	1980년대 그래픽·패션의 특징
Olle Baertling		Christian Lacroix		
		(1988)	(in: vogue, 1988년 4월)	
(1954)	(in: Crosscurrents, Tony and Claes Lewenhaupt, p.131)	Y.S. Laurant		
		(1988)	(in: Bazaar, 1988년 9월)	

Ⅲ.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통한 패션 예측

1.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

패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패션 현상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패션 현상에 관한 연구는 일찌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 되어져 왔다. 그 중 George B. Sproule는 1986년 출판된 「Behavioral Science Theories of Fashion」에서 8가지 행동 과학 모델을 제시하여 패션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유행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현상을 역사적 흐름으로 설명하고자 역사적 모델을 사용 하였고, 패션은 시대의 미적 산물이므로 유행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예술사조와 관련된 분석이 포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 사조 모델을 중심으로 패션 현상을 파악 하였다.

(1) 역사적 모델

복식사를 통해 볼 때 과거에 출현하였던 복식의 한 형태가 다시금 반복되어 현재에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 반복 되어져 나타나는 유행은 복식사에서 가능한 복식의 형태가 거의 다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는 과거의 복식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면을 추가시켜 스타일을 만들어 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는 먼저, 주기성을 밝히려는 Alfred L. Kroeber의 1919년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유행의 반복성에 따른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Alfred L. Kroeber는 1919년 여성의 이브닝 웨어가 벨(Bell), 버슬(Bustle), 스트레이트 실루엣 순으로 약 50년을 주기로 변화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1750년부터 1950년까지 잘 적용되어 왔음을 밝혔다.¹⁰⁾

Agnis B. Young은 1937년에 1760년부터 1937년까지 여성 의복의 실루엣에 있어 특히, 스커트 윤곽을 중심으로 규칙적인 패턴의 반복이 있음을 밝혔는데,¹¹⁾ 벨, 튜블라(Tubular), 버슬의 세가지 기본 실루엣이 35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다시 같은 스타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0여년이 소요 된다고 하였

다.¹²⁾

Marilyn, J.Horn 그리고 Troxell과 Judelle은 주기의 가속화에 대해 언급 하였고, Carmen, J.M.은 실증적 연구로 현대 유행의 주기 단축을 밝혔다.¹³⁾

이러한 주기성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반복 되어져 나타나는 유행은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Robinson, D.E.은 반복의 규칙이 있는 곳에 예측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 예측은 완전한 예측은 아니라고 하면서, 재현 되는 유행은 모방하는 것이지 어느 한 시대를 완전히 복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¹⁴⁾

Horn, M.J.은 재현 되는 스타일이 결코 완전한 반복이 아니라 그 중 특정 요소들만이 다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¹⁵⁾

또한 Bonnie D. Belleau는 1860년부터 1980년까지 여성의 데이 드레스에 있어 어느 정도 반복적인 패션 운동이 있음을 밝히면서, 유행이 빈번히 과거의 요소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으며, 유행의 진보는 더 이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재현들이 유행의 예측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유행을 재현의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¹⁶⁾

역사적 모델은 반복성 이외에 연속성이 있다. 이 모델은 각각의 새로운 유행은 전 유행의 진화적 발전의 결과이며, 직전의 유행에 의하여 현재의 유행이 결정 되고, 현재의 유행에 의하여 장래의 유행이 결정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¹⁷⁾

Young, A.B.는 매해의 새로운 유행은 혁신적이고 극적인 변화이기 보다는 바로 이전에 존재했던 유행에 의해 고무된 것이며, 이런 유행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점진적인 것으로 단지 사람들이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언급하였다.¹⁸⁾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극단으로까지 진행된 유행은 새로운 경향을 찾아야 하는 전환점에 이르러 반대로 후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에 클래식 스타일(Classic Style)은 새로운 유행 경향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매해의 유행은 과거의 것을 기초로 한 이전 스타일의 자연적인 발전 또는 수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예측자가 지난 5년에서 10년간의 기본적인 스타일 요소들의 변화를 평가한다면, 먼 미래

는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의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술 사조 모델

이 모델은 예술사조와 진화적인 패션 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유행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다. 또한 패션이 미적 산물이기 때문에 패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유행 분석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²⁰⁾

의복과 다른 형태 즉, 미술, 조각, 건축, 가구 그 외 실내장식 등 상호 관계성에 대한 실례는 대부분의 역사 시대에서 발견 할 수 있다.²¹⁾ 최근에 와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예술 사조와 패션과의 관련성에 관해 미학적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 되어지고 있다.

그 중 William Packer는 20세기 이후, Vogue지에 나타난 패션 드로잉(Fashion Drawing)은 예술 사조의 흐름, 즉 아르 누보, 아르 데코, 입체파, 낭만적 표현 주의, 초현실주의 내지는 팝 아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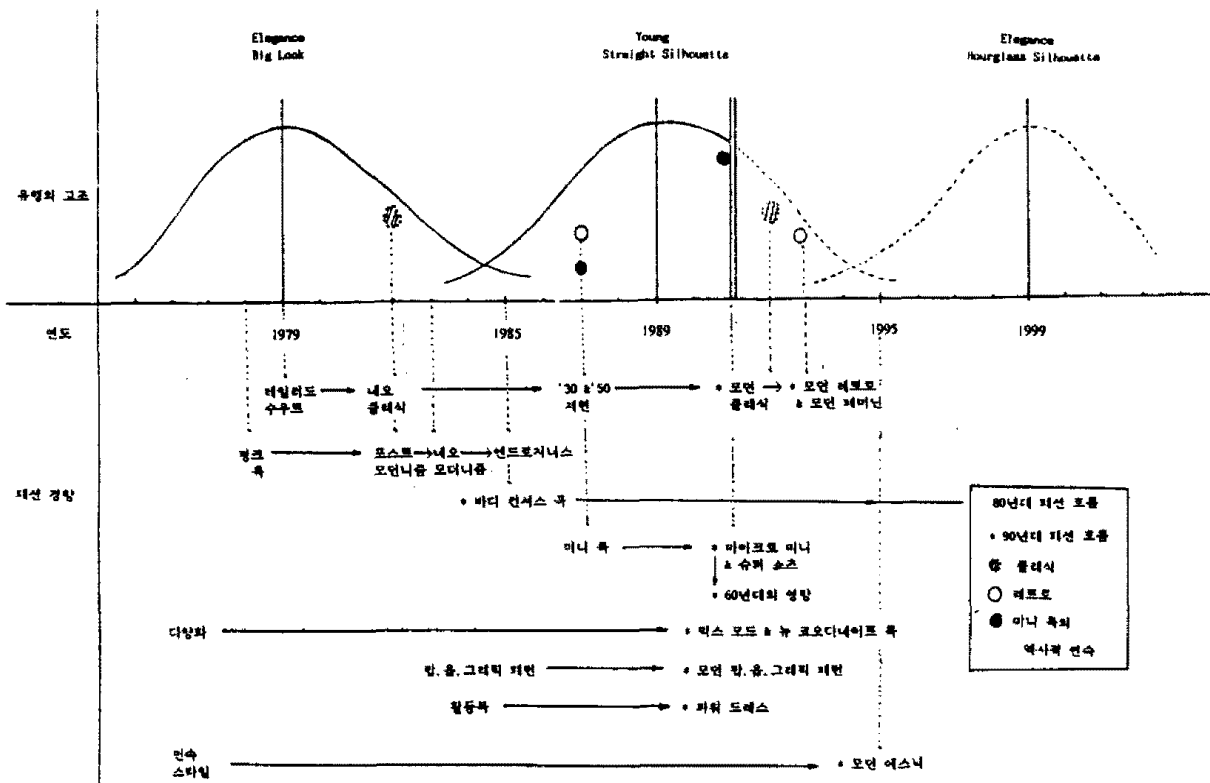
Contini, M.은 시대적으로 복식의 스타일은 그 시대의 순수 예술과 유대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복식에 나타난 모티브(Motive)와 그 시대의 회화, 조각품 기타 미술품에 나타난 모티브의 공통점을 지적하였다.

Ginsburg, Madeleine은 1900-1930년 동안 예술 분야에 영향을 받은 패션과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 연구 하였으며, Farrell-Back, Jane A.와 Petsch, J.V.는 예술사조와 패션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 하였고, 나아가 순수 예술에서 추구하는 철학이나 의미는 패션 디자인의 진보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 시대의 다른 예술 분야 즉 건축, 가구들의 모티브와 그 시대의 패션 모티브가 겹토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²³⁾

이렇듯 한 시대 복식을 이해함에 있어 예술이 없어서는 아니되며, 예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적 물(物)로서 패션을 빼 놓을 수 없다.²⁴⁾

2.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과 패션 예측

이 장에서는 1980년대 패션 흐름과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을 연관지어 현재 유행의 흐름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4년간 유행 되어질 패션 흐름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표1-유행의



<표 1-유행의 주기 곡선>

주기 곡선>을 이용하여, 패션 행동 과학 모델과 패션 예측의 상관성에 보다 접근하려 하였다.

20세기 복식의 흐름을 젊음의 강조와 우아함을 강조하는 10년간의 주기로 살펴본다면, 1980년대는 젊음의 강조가 다시 나타난 해다.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로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미니 스커트의 재등장을 들 수 있다. '자유와 젊음'의 상징인 미니 스커트의 재등장은 1980년대 중·후반의 다른 복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는 레깅스(Leggings), 쇼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활동성이 편한 스포츠 웨어가 일반 사무 복장이나 파티 장소에서 하이 패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패션 흐름에 한 부분을 장식했던 바디 컨서스 룩과 미니 스커트가 현재의 패션 흐름에서 절정을 이루어감에 따라 1960년대 패션을 현재와 이후 등장할 패션 흐름에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1980년대 초반에 레이어드의 비록은 패션의 연속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속에서 교차적으로 스타일의 전이를 가져오기 위한

네오 클래식(Neo-Classic) 스타일인 비록의 테일러드 슈트가 80년대 중반까지 패션의 흐름에 나타났다.

현 시대 미니 스타일은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길이에 있어 극고조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미니 스타일이 극단에 이르는 시기에는 클래식 스타일을 이용한 스타일의 전이가 예상된다.

스타일의 변화는 직선적이고 젊음을 강조한 스타일에서 다시금 곡선적이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전개될 것이다. 이 시기의 디자이너들은 성숙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던 30년대, 혹은 50년대의 패션에서 힌트를 얻어 활동적이면서 현대성이 조화된 페미닌 룩을 등장 시킬 것이다. 이 룩은 스타일 면에서는 단순한 슬림 라인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디테일면에서는 80년대 보다 과장되고 화려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유행한 장식적이고 낭만적인 민속풍의 스타일과 같이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각색 되어져 나타나는 에스닉 룩은 90년대 중·후반 패션 흐름에서 극고조를 이룰 것이다.

1980년대 패션은 다양하면서도 각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함과 창조성이 있었다. 그것은 셋트(Set)적인 착장 방식에서 벗어나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진 패션을 매치시켜 입음으로써 다른 방식의 패션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패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예술과 접목된 패션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중 1960년대의 팝 아트, 옵 아트는 1980년대 복식에 예술의 표현 기법과 형식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미래의 독특한 개성시대로의 패션을 발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 아트는 다양한 소재 개발을 유도 하였고 다음 시대에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IV. 1995년까지의 패션 예측

1. 바디 컨셔스 룩

1984년 인체 미학의 재인식에 의하여 몸의 곡선을 의식한 바디 컨셔스 룩이 재등장한 이후, 이 룩은 현대 복식 흐름의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육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축적인 디자인을 피하고 내츄럴한 실루엣을 표현하도록 디자인 되어졌다. 또한 이 룩은 각기 개성적인 바디 자체가 복식 디자인의 소재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몸 자체가 자기 표현의 소재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바디 컨셔스 룩은 1990년대 초반에 이어 21세기로 향한 미래 의상의 준비 단계로 유행의 흐름을 리드 할 것이다.

2.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와 슈퍼 쇼츠

1960년대 출현한 이래 1980년대 후반 재등장한 미니 룩의 매력은 스커트 뿐만 아니라 미니 드레스(Mini Dress), 쇼트 코우트(Short Coat), 쇼트 팬츠(Short Pants) 그리고 롱 자켓과 함께 미니 슈트(Mini Suit) 등 그 폭이 확대 되었다. 이러한 미니 스커트의 점진적인 길이 변화에 의하여, 1991년 겨울을 위한 콜렉션에서는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와 슈퍼 쇼츠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미니 스커트의

높은 호응도에 따른 패션의 연속성에 의한 길이 변화로써 미니 스커트와 쇼츠의 극단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3. 1960년대의 영향

1989년 가을 시즌부터 차차 일기 시작한 60년대 재현 경향은 90년대 초에 계속해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은 미니의 시대였으며, 그런 만큼 패션은 젊음을 과시했고 그에 따른 소품들을 미니의 창조 시대인 60년대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60년대 이미지로 90년대의 성숙한 여성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하이 패션 분야에서 전위적인 패션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며, 디자인의 영감의 출처로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모던 클래식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절정을 이루는 미니 스타일에 이어 디자이너는 그 다음에 도래할 새로운 스타일을 모색할 것이다. 한 유행이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그 변화가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한 극단에 이르면 끝이 나는 역사적 연속성에 따른 스타일 변화의 패턴에 비추어 유추하는 것도 꾀 흥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1991년에 나타난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는 더 이상 짧아질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변화한 방향의 역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모던한 소비자들에게 덜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또한 패션 리더들도 패션 추종자들과 동시에 거의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클래식 스타일의 출현이 예측되어진다. 바로 1991년-1993년은 이러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시기는 1960년대 후 1970년대 초 패션의 혼란기 상황과 동일한 것이다. 스커트의 길이가 초미니부터 맥시까지 공존하여 스커트는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한 채 팬츠 슈우트(Pants Suit)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몇년 후 무를 바로 아래의 샹넬 라인(Channel Line)의 스커트가 등장하여 새로운 유행 방향의 출발점으로 제시 되면서 그 길이는 점차 길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이 유행의 속도가 가속화 된 1991-93년에 똑 같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패션의 기본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으리라 본다. 설정에 이른 미니 스커트에 대응해서 다양한 팬츠 룩의 부활이 엿 보이며, 팬츠 이후에는 극단적으로 전개된 실루엣과 핫 라인(Hot Line)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의복의 라인을 안정 시킨 클래식 룩이 등장할 것이다.

5. 모던 레트로와 모던 페미닌

1970, 80년대 복고화 물결에 이어 1990년대 유행 흐름 역시 복고화 즉 레트로 룩이 일어날 것이다. 이 룩의 시대 설정은 성인풍의 여성다움이 요구되었던 1930, 50년대로써, 귀족적이면서도 사치스러운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화려하게 표현할 것이다.

각진 패드에 남성미를 나타내는 딱딱한 느낌의 여성이 아닌 부드러운 어깨를 가진 우아하면서도 활동적인 여성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강조한 슬림 라인이 새롭게 각색 되어질 것이다.

이 때에는 1990년대 초반 극고조를 이룬 미니 스커트가 클래식 스타일을 거치는 동안에 그 길이가 무릎 선에 머무를 것이며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무릎 아래로 길어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루엣과 함께 디테일 면에서도 프릴과 주름, 80년대 유행한 드레이퍼리(Drapery)가 계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또한 새롭게 허리를 강조하기 위한 페플럼(Peplum) 등의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사용 될 것이다.

6. 모던 에스닉

성숙한 여성상을 만들어 내던 모던 클래식 룩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모던 에스닉 룩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스닉 룩은 1970년대 후반에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된 룩으로써 198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다 소멸하였다. 그러한 영향은 계속적으로 남아 1980년대 후반에는 잠시 스타일이 아닌 소재의 패턴상으로 그 분위기를 재현시켰다.

그 자체적으로 여성스러움, 그리고 이색스러움을 지닌 에스닉 룩은 90년대 중반 시대적인 독특함과 우아함을 지닌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패션의

흐름에서 가장 사랑 받는 룩이 될 것이다. 이 때의 룩은 값이 싸고 흔한 민속복 그대로를 옮겨 놓은 듯한 70년대 에스닉 룩하고는 다르게 부유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도 스타일면에서는 단순하고 세련된 에스닉 룩을 이룰 것이다.

7. 파워 드레스

위에 나열한 것들은 90년대 중반까지 패션의 흐름이고, 이러한 룩들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90년대 의상은 활동적인 현대 의상에 맞게 우선적으로 기능적인 의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파워 드레스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의상을 말하며, 일반 복장에서 스포츠 웨어에 영향을 받은 의상을 뜻하기도 한다.

T(Time), P(Place), O(Occasion)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러운 스타일에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연출하는 수단으로써 의상은 90년대 패션에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스포츠 웨어와 레저복의 영향을 받아 스포티브 캐주얼로부터 스포티브 모던, 스포티브 엘레강스, 스포티브 포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1990년대 패션 흐름에 활동적이면서도 새로운 멋을 창출할 수 있는 일상복을 만들 것이다.

8. 믹스 모드와 뉴 코오디네이트 룩

1990년대 패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단일 이미지만이 아닌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 스타일, 표현기법 등을 동시에 혼합 시킨 복합적인 스타일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패션에서는 클래식, 자연스러움, 민속적인 스타일, 복고풍과 미래의 영향을 함께 받은 스타일이 동시에 연출된 믹스 모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색상과 소재면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믹스 모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옷 입는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즉 뉴 코오디네이트 룩을 만들 것이다. 옷 입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자유와 개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후반의 다양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본다. 70, 80년대에 나타났던 다양화란 여러 스타일이 한 사회 안에서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화는 '한 사회'가 아닌 '한 벌'의 의상에까지 나타나는 믹스 모드와

뉴 코오디네이트 룩으로 대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9. 모던 팝. 옴. 그래픽 패턴

1990년대에 계속해서 흐를 팝 패션은 반항적이고 무조건적인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세련되고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분위기를 가진 팝 패션이 흐를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팝 아트와 옴의 모티브가 현대적 감각에 맞게 프린트나 패턴상으로 나타난 이래로 거리 패션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팝 패션이 하이 패션으로 영입될 수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90년대로 이어져, 고급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소재와 사이키델릭 프린트(Psychedelic Print) 등이 사용되는 가운데 90년대 하이 패션으로서의 독특한 팝 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이 패션에서 뿐만 아니라 전위 예술로써 팝 패션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90년대의 시대 정신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 밖에 옴 아트와 그래픽 아트도 90년대 복식을 모던한 감각으로 장식할 것이다. 현대적 스타일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외면과 같지 않는 복잡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현대 복식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패턴상에 옴 아트와 그래픽 아트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90년대 패션 프린트는 모던 팝, 옴, 그래픽 아트에 의한 프린트가 주축이 되며 또한 이러한 프린트 등은 믹스 모드에 의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동시에 한벌의 의상에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기존의 절제된 예술 기법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다.

V. 스타일화 제시

스타일 제작의 기본 기조는 패션의 역사적 모델과 예술 사조 모델에 바탕을 두었다. 기준 연도는 1992-93년도로 하여 디자인 예측을 하였다. 제4장에서 제시 되어진 패션 예측 중 이에 해당되는 항목을 연관지어 제작 하였다. 기성복 컬렉션에 제시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을 두었다.

1. 작품 I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1950년대의 역사적 재현과 패션 연속성에 있어 미니 길이의 진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바디 컨서스 룩

2) 특징; 이 작품은 1950년대 Paquin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현 시킨 것이다(도 1). 라인에 있어서는 간단 명료함을 주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에 피티드 실루엣을 이루도록 하였다.



〈도 1〉 1950년대 Paquin 작품
(in ; Fondtion De La Mode Japon, p.98)



〈작품 I〉

2. 작품 II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1800년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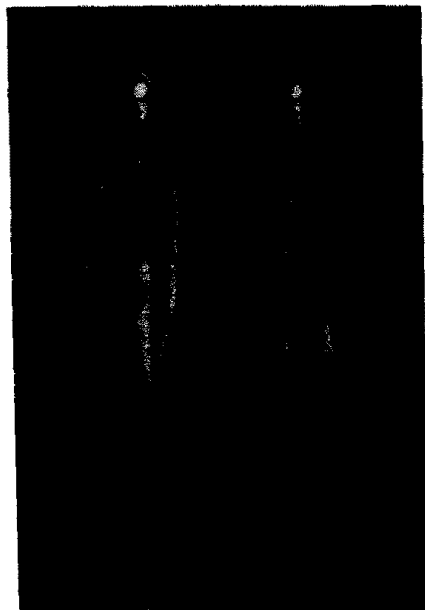
역사적 재현과 쇼츠의 길이 변화에 의한 패션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 주는 바디 컨셔스 룩, 파워 드레스, 믹스 모드와 뉴 코오디네이트 룩

2) 특징 ; 이 작품은 1813-15년의 나폴레옹 장군의 코우트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도 2).



<도 2> 나폴레옹 장군의 코우트
(1813년-1815년)

그의 자켓의 특징인 빨간 파이핑과 단추를 알루미늄 금속성의 소재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켓의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현 시대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또한 옷 입는 방식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였다.



<작품 II>

3. 작품 III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 1930년대 여성 복에 주로 사용된 체크 패턴 활용에 의한 모던 클래식, 모던 페미닌 룩

2) 특징 ; 이 스타일은 다가올 페미닌 룩을 나타낸 것이다. 전통적인 색상의 체크 패턴으로 고전풍을 느끼도록 하였다.



<작품 III>

4. 작품 IV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 바디 컨셔스 룩, 1960년대 전위적 의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파워 드레스

2) 특징 ; 1990년대 패션의 한 부분을 장식할 전위적인 디자인이다. 가슴 앞 중앙에는 모니터를 부착 시켜 T-셔츠의 문귀와 같이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 하였다. 우측의 디자인은 실루엣면에서는 간단하게 몸의 곡선을 처리하면서 내적으로 사이키델릭한 푸치 프린트를 사용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이면(裏面)을 다루었다.

5. 작품 V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 1960년대 우주 룩을 재현한 파워 드레스

2) 특징 ; 이 작품은 기존의 정렬된 털 코우트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대중화 된 털코우트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려 하였다. 또한 안감에 페인팅 룩(Painting Look)을 시도함으로써 겉과 안의 입체적 흐름을 줌으로써 무한한 우주 공간을 담았다.



〈작품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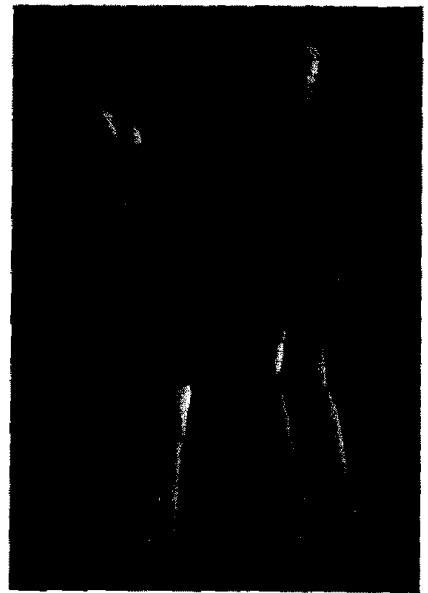


〈작품 VI〉



〈작품 V〉

2) 특징; 이 작품은 다가올 의상 디자인의 특징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기존에 존재하였던 모든 이미지, 또는 소재, 색상을 동시에 한벌의 의상에 복합 시킴으로써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작품 VII〉

6. 작품 VI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1960년대 옵아트에 의한 패션의 재현으로 1990년대 초반 패션의 모던 옴 패턴

2) 특징; 각기 다른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8. 작품 VII

1) 제시된 패션 예측과의 관계; 모던 팝, 옵, 그래픽 패턴의 믹스 모드로 모던 페미닌 룩

VI. 결 론

본 논문은 1980년대 패션 흐름과 패션의 행동 과학 모델 간의 상관성에 부합되는 <유행 주기

곡선>을 제시하여, 1995년까지의 패션을 예측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패션에 대한 스타일화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적용된 1995년까지의 패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체를 의식한 바디 컨서스 룩이 1990년대 패션 전반에 걸쳐 주를 이룰 것이다. 1990년대 패션 흐름에서 인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창출을 위하여 자기 표현을 위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둘째, 젊음의 강조에서 나타난 80년대의 미니 룩은 <유행의 주기 곡선>에 있어 대표할 만한 역사적 모델이다. 미니 룩의 길이 변화는 역사적 연속성에 의해 90년대 초반 그 길이 변화가 극고조에 이른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와 슈퍼 쇼츠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미니 룩은 60년대의 재현물로서 기타 다른 패션 품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60년대에 사용되었던 악세서리 등을 이용함으로써 그 시대에 근접해 가고 있다.

넷째, 극고조에 이르러 더 이상 상향 진행하지 않을 미니와 슈퍼 쇼츠는 클래식 스타일을 이용하여 스타일에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러한 시점이 1960년대 후반에 이은 1970년대 초반의 패션 상황과 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클래식 스타일 이전에 바지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모던한 클래식 스타일을 이용한 패션 흐름의 변화는 젊음의 강조에서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한 페미닌 룩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반복성에 나타난 주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디자이너들은 30년대 또는 50년대 여성의 이미지를 회고하여 90년대 중반 패션 흐름에 현대성이 가미된 페미닌 의상을 제시할 것이다.

여섯째, 이후 등장하는 패션은 페미닌 룩의 진행을 가속화시킬 에스닉 룩이다. 이러한 룩은 화려하고 부유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곱째, 80년대는 활동성이 가미된 의상을 원했다. 90년대 디자이너들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미래 의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80년대 의상의 다양화는 90년대에 들어

와 더욱 가속화 되어, '한 시대'가 아닌 '한 별'의 의상에서 동시에 여러가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룩을 창출할 것이다.

아홉째, 60년대에 이어 80년대 패션에 영향을 준 팝 아트, 옹 아트, 그래픽 아트는 90년대 패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기존의 실루엣과 디테일 변화 한계에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패션 정신을 움직일 것이다.

패션 예측에 관한 연구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두 가지 패션 행동 과학 모형 외에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마케팅, 의사 소통 모형을 통한 패션 현상의 파악이 이루어져,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실험 연구 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George B. Sploes, 「Behavioral Science Theories of Fashion」, [In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 D.C. Heath and Company, 1986), pp.55-70
- 2) Jeannette A.I Jarnow, Mariam Guerreio, Beatrice Judell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307
- 3) Vogue, 1985년 7월, p.187
- 4) Vogue, 1990년 1월, p.218
- 5) Vogue, 1990년 1월, p.218
- 6) 정혜선, "패션에 미친 팝 아트(Pop Art)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청구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7), p.19
- 7) 정홍숙, 「복식 문화사(서양 복식사)」, (서울 : 교문사, 1981), p.309
- 8) 박경자, 유효순, 「서양 복식 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89년), p.441
- 9) 이신아, "팝 아트(Pop Art)와 복식",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p. 34
- 10) Bonnie D. Belleau, "Cyclical Fashion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5-2, 1987), p.15

- 11) 이은영, 「패션 마케팅」, (서울: 교문사, 1991), p.71
- 12) Adrian Baily, 「The Passion For Fashion」, (Limpfield: Dragon's World Ltd, 1988), p.42
- 13) 구미지, “버슬 스타일을 中心으로 본 流行의 週期性 研究”,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p.3
- 14) Dwight E. Robinson, “Style changes: Cyclical, Inexorable and Foreseeable”, (Harvard Business Review, 1975, 11-12), pp.121-131
- 15) 구미지, 앞 책, p.6, 재인용
- 16) Bonnie D. Bellearu, 앞 책, pp.15-20
- 17) Sproles, G.B. 앞 책, p.62
- 18) Sproles, G.B.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1979」, p.211
- 19) Adrian Baily, 앞 책 p.15
- 20) Sproles, G.B. 앞 책(1986), p.63
- 21)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263
- 22) William Packer, 「Fashion Drawing in Vogue」,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3), pp.8-32
- 23) 김민자, “1960년대 팝 아트(Pop Art)의 사조와 패션”, (한국 의류 학회지, 1986, Vol. 10, NO. 1), pp.69-70, 재인용
- 24) 김민자, 앞 책, p.83

ABSTRACT

FORECAST OF FASHION TO 1995 —Concerning the Behavioral Science Models of Fashion—

Oh, Hyun Nam & Kim, Moon Sook
Dep. of Home Economics of
Seoul Women's University

Fashions are constantly subject to change, so that forecasting trends in fashion is very difficult and the forecasting is very important. The reason is that forecasting is identifying a hot trend for

the next days' business and projecting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alistic forecasting theory identify fashion trends at present, further forecaste fashion trends to 1995.

For this study, historical models (the historical resurrection model, the historical continuity model) and the art movement model among the behavioral science models which was suggested in 1986 by George B. Sprol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is study, <A Curve of Fashion Cycle> was exhibited. This curve was resulted from relation between 1980s fashion trends and the behavioral science models of fashion.

Fashion trends to 1995 through <A Curve of Fashion Cycle> will be followings:

1. Body Conscious look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will be continued throughout 1990s' fashion trends.

2. The attraction of Mini style was started from the middle of 1980s, recently gets near micro mini and super shorts, These are representative of the historical continuity model.

3. Mini look as revivals of '60s fashion is pulling other fashion items of the '60s in early 1990s fashion trends. This phenomenon identifies that "Fashion is repetition"

4. When Mini look and super shorts reach, will not progress any more. In this time, will be seen transfer of style by using classic style. That is modern classic will be appeared, also this condition is same from late 1960s to early 1970s. In view of the historical base, the action of the varieted pants will be prominent.

5. Fashion trends which passed through this process will transfer from young look to elegant look. In this time, designers will retrospect '30s and '50s fashion trends, and then will design modern feminine look.

6. Ethnic look, the fashion trend after that condition will be accelated feminine look, this look with the feminine look will reveal rich, colorful,

elegance feminine image.

7. In 1980s, activity and function in clothes were demanded. The clothes which are considered these condition will be demanded continuously.

8. The variety of fashion will appear as mix mode and new coordinate look in a clothes simu-

ltaneously in fashion of '90s. And these looks will creat mixed beauty.

9. Pop art, op art, graphic art will be not only development of textile but also movement of fashion soul in 1990s.

The fashion behavior will be continuously scientificated.